

전주시 노인회 지회장 선거 둘러싼 분쟁 예고

현 지회장 노인회 정관 위반·사전선거운동 의혹

방만한 운영과 각종 비위로 꾸준한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는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이번에는 회장선거를 둘러싼 노인회 정관 규정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한 분쟁이 예상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노인회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지회장이 사전선거운동과 노인회 정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일 대한노인회 중앙 규정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신하 전주시지회의 수석부회장 수는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1명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노인회 지회는 8년전부터 중앙회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석 부회장을 완산구와 덕진구 둘로 나눠 2명으로 임명해 시행해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규정을 위반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도 지난 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회장이 차량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전 수석부회장이라는 이름을 수

년간 부착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일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선관위 제소 등 분쟁의 씨앗까지 남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현 지회장은 지난 2022년 5월 30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수천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을 지정기부를 통해 전주시 지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자신의 수석 부회장 직함을 부착하고 다니다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지난해 4월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 지회장의 사전선거운동의혹 행위를 전주시 노인회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한노인회 전주특별자치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제소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노인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전 전영배 지회장은 "지난 8년전 전주시는 양대 구청이 있고 650개의 경로당이 산적하다 보니 노인인구와

업무량이 과중해 수행역량을 생각해 수석 부회장을 2명으로 전주시노인회 지회장 선거당시 선거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며 "당선후 전주시 노인회 총회를 통해 도 노인회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 덕진구와 완산구로 나눠 수석 부회장을 임명한 만큼 당시 상황으로 정관규정상 위배여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량이 많은 전주시 노인회 차량이 너무나 노후돼 불만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당선자로부터 스타렉스 지정기부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당시로 보서는 사전선거운동의혹 여부를 생각할 틈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지난해 4월쯤 수석 부회장 직함을 차량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용식 전주시 노인회선거관리위원장은 "노인회 지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는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업무용 차량의 수석 부회장 직함 부착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만길 전 덕진구 분회장은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도 없고 전국 어디에도 없는 수석 부회장을 2명을 전주노인회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에도 타당성이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에 4000만원 상당을 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수석 부회장 명칭을 부착하고 다닌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언 현지회장은 "지난 2021년 당시 지회장으로부터 수석 부회장이 유고가 생겨 이를 부탁받아 수용한 것이 사실이고 정관규정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여러차례 문의한 결과 당시 상황을 따져 위배될 사항이 아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며 "당시 노인회 차량이 노후됐다는 지회장의 말과 부탁을 받고 중앙회 지정기부를 통해 구입한 것은 맞지만 그간 여러차례 걸쳐 업무용 차량에서 수석 부회장 직함과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주기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해 4월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결산감사위, 주요 사업 현장 점검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 위해 추진 성과·예산 집행 적정성 등 확인

전주시의회 결산감사위원회(대표위원 박해숙 의원)가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의 결산감사를 위해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옥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 현장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박해숙 결산감사 대표위원은 "꼼꼼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결산 감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결과를 점검하는 결산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이어진



다.

결산감사 위촉 위원은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박해숙(문화경제위원회, 송천1동) 의원을 비롯해 김동현(행정위원회, 삼천1·2·3, 효자1동) 의원, 송승용 전 도의원, 전종표, 최춘희 전 전주시 공무원, 봉삼종 세무사, 이철희 공인회계사 등이다.

/권희성 기자

효자1동 마을관리공동체, 마을 텃밭 가꾸기 나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마을관리공동체(대표 김계천)가 서부시장 청년불알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마을 텃밭가꾸기에 나섰다.

이날 마을 텃밭 조성은 효자1동 마을관리공동체에서 회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시장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상추·고추·깻잎 등 작물을 심으며 자칫 유휴지로 방치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있는 도시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엔 조성한 마을 텃밭에서 수확된 여러 작물들은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 밀린한 나눔봉사에 활용하는 등 어려운 이웃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계천 마을관리공동체 대표는 "이번 마을 텃밭 조성은 우리 동네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가꾸며 주민들



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마을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 텃밭 조성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숙 효자1동장은 "먼저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마을관리공동체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마을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6개 대학과 평생교육 활성화 협약

대학 연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손을 맞잡았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6개 지역대학(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는 공교한 관·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 교육에 활용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6개 대학과 함께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전북시민대학 전주캠퍼스' 운영 등 두 가지 방향의 대학 연계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우석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참여한다.

시는 이들 대학에 각각 8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원해 △스마트 버섯 재배(국립한국농수산대) △트레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다.

킹 역사 탐방(우석대) △스마트 그린 라이프(전주기전대) △커피 바리스타 실무(전주대) △드론 방제 정비사 양성 과정(전주비전대) 등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교육은 취업 역량 강화와 실생활 밀착형 교육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전북시민대학 전주캠퍼스'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전

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참여하며, 도·시비 총 7800만 원이 투입돼 총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대학 중 국립한국농수산대는 공모사업에서 농기계 운전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에서는 버섯 재배 기술 전수로 교육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이와함께 두 개의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3개 대학(국립한국농수산대, 우석대, 전주대)의 경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지역 대학 간 관·학 협력 관계를 넘어서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과 대학의 시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학은 지역의 지적 자산이자 교육 자원의 보고"라며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전주형 평생학습 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팔복동 주민자치위, 나눔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 전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17일, 관내 '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나눔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0여 명이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참여 단체인다.

김상호 팔복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팔복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 말했다.

장진영 팔복동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